



매디슨 한인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홍진국 클레멘스 (608) 231-2350

본당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thekccm>

[부활 제 3 주일]

2009년 4월 26일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유도일 하비에르, 양지웅 라파엘
다음주 독서: 우명희 카타리나, 정태준 요셉
이번주 복사: 강선우 마르가리타, 박경은 요세피나
다음주 복사:
미사 해설: 전은숙 글라라
반 주: 조은영 베다
회 계: 정상혁 토마스 아퀴나스
정리 및 성당 문단속: 우리 구역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헌금: \$188.25
교무금: \$400.00
합 계: \$588.25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 양지웅 라파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5월 1일) 저녁 7시, 사제관. [신부님]
금요교리: 신앙입문	격주 금요일 (5월 8일) 저녁 7시, 사제관. [신부님]
학부생 성서모임	매주 수요일 (4월 29일) 저녁 8:30-9:00, 성당 사무실 [신부님]

† 오늘의 묵상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만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답답해진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잡수시며 마음을 열어 주십니다. 오랫동안 같이 있었고 수차례 부활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 엄청난 사건이기에 그랬을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돌아가셨다고 확신했던 분이 말씀을 걸어왔으니 놀람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 말씀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긴가민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꾸짖으시기는커녕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오히려 당신 상처를 보여 주시며 음식까지 드시는 애정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어떤 설명보다 더욱 힘 있게 제자들을 설득하였습니다.

신앙은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 행위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스승님에게서 이 사랑을 먼저 느꼈습니다. 그러기에 애정을 확인받자 곧바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머리보다 '마음을 먼저' 열어 주신 셈입니다. 깨달음에는 애정이 언제나 이론보다 앞섭니다. 그러므로 '사랑 없는 이론'은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승복'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복음 계속>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47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48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제 1 독서> 사도행전 3,13-15.17-19 <여러분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으나, 하느님께서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제 2 독서> 요한 1 서 2,1-5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화답송

◎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또는 ◎알렐루야.)
○ 저를 의롭다 하시는 하느님,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곤경에서 저를 구해 내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제 기도를 들으소서. ◎
○ 너희는 알라. 주님은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어 주신다. ◎
○ 많은 이가 말하나이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 주랴-"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
○ 주님, 당신만이 저를 평안히 살게 하시니, 평화로이 자리에 누워 잠드나이다.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 오르게 하소서.
◎ 알렐루야.
+ 루카 24,35-48

복음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이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드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 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 <계속>

[영성체송] 빵을 나눌 때,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알아보았네.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시작: 131 봉헌: 212 성체: 167 파견: 128

† <생명의 말씀>

믿음이 주는 평화

- 요셉 신부님의 매일 복음 묵상중

이집트 성지순례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새벽에 시나이 산에 올라 해가 뜨는 장엄함을 감상하는 것입니다. 해가 끝없는 붉은 돌산들 저편에서부터 떠오를 때는 정말 장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벽에 산을 오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올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걸어 올라갑니다. 걸어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는 낙타를 타는 것이 무서워서 일부러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저도 처음 낙타를 탔는데 낙타가 일어서니 아래에서 보는 것보다 매우 높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낙타는 줄을 지어 한 쪽이 낭떠러지인 길을 따라 산을 오릅니다. 옆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조금은 안심이 되지만 그래도 뒤통뒤통 산을 오를 때는 이 동물에게 나의 생명을 맡겨도 되는가 싶은 의문이 자주 듭니다.

이 동물은 이상하게 안전한 쪽이 아니라 낭떠러지 쪽으로만 걷습니다. 수 없이 낭떠러지로 낙타의 발에 치이는 동물이 굴러 떨어집니다. 단 몇 센티만 옆으로 디려도 낙타와 함께 낭떠러지로 떨어질 판이라 매우 겁이 납니다. 낙타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앞만 보며 걸어갑니다.

그렇게 위태위태하며 올라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고삐를 잡고 함께 오르던 원주인이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낙타는 그저 본능대로 걷기만 합니다. 정상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원주민들이 끝까지 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안해하며 낙타 안장에 꼭 붙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낙타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슬아슬 벼랑 가장자리로만 걸지만 불안해 해 봐야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냥 낙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늘의 별들을 보며 야경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편한 마음으로 인생을 즐길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고나 할까요? 낙타만 믿어도 그렇게 편안함이 오는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 인생을 얼마나 평화롭게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갈릴래아 호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물 위를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하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두려움이 정말 하느님을 만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저도 성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새벽에 술 마시고 성당에 올라와 성모님께 기도하려 했는데 성모님의 동상이 진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술이 취하여 그런 줄 알고 더 자세히 보았지만 그 분의 살갗은 정말 사람의 살처럼 보였습니다. 성모상 앞에서 성모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성모님처럼 보이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감히 동상을 쳐다보지 못하였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 다시 눈을 들었더니 이젠 동상으로 보였습니다. <옆면 계속>

† <알려드립니다...>

- ❖ 공동체에서 주관하는 바자회가 5월2일 (토) 열릴 예정입니다 (Eagle Hts. Brown Shelter, 오전 10시30분 - 오후 2시30분). 구역별로 음식을 준비한 음식들과, 공동체 전체에서 준비한 불고기, 각종 김치등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음식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음식준비외에, 바자회 당일날 행사장 에서 바자회를 도와주실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바자회 소식을 널리 알리고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바자회 준비를 위하여 공동체에서 아래의 물품/식품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교우분들께서는 사목회장이나 성모회장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물품/식품 - 김치병 (small or large), 판매 식품 담을 plastic bag, 건어물 (멸치등등, 조림용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 ❖ 다음 주 미사는 5월3일 (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지난 부활 성야 미사를 가진 Multicultural Center 에, 감사의 편지와 함께 지난 3월 마지막 주의 2차 헌금을 통해 모여진 기금 \$200 을 전달하였습니다. 2차 헌금을 도와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 ❖ 오늘 미사후 성당 사무실에서 정기 사목회의가 있겠습니다. 특히 바자회 준비를 위한 안건들이 많이 있어서, 각 구역장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리고는 어느 정도는 주님께서 정말 나를 불러주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고 결국 그 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렇게 1 년간의 고민은 끝을 맺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겁을 집어먹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그 분을 영접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순풍에 돛단 듯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풍랑을 만난 배와 같이 흔들리고 있다면 아직은 예수님을 만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분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내 자신이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께 믿음을 둔다면 그 분은 착한 낙타처럼 우리를 안전하고 평화롭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실 것입니다.

내가 풍랑 속에서 노를 저으며 두려워하고 고생하는 삶을 넘어서 나에게 다가오고 계신 주님을 마음을 열어 영접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분이 풍랑을 가라앉히고 우리가 인생을 평화롭게 즐기며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해 주실 것입니다.